

# 꽃 이야기

시냇물



소개글

## 목차

---

|                        |     |
|------------------------|-----|
| • 매혹적인 여우꼬리            | 5   |
| • 인동초로 만든 꽃 탑          | 11  |
| • 우리집 붉은 인동초           | 16  |
| • 관곡지 연꽃테마파크의 수련들      | 24  |
| • 우리집 천사의나팔            | 43  |
| • 강화 정수사의 현호색          | 50  |
| • 풍도에서 만난 꿩의 바람꽃       | 53  |
| • 탐방객을 반기는 풍도복수초       | 60  |
| • 풍도에 핀 변산바람꽃          | 69  |
| • 우리집 복수초와 바람꽃이 피었네.   | 82  |
| • 100Km를 달려서 찍은 해국 한송이 | 87  |
| • 산사에 핀 구절초(영평사)       | 96  |
| • 고난을 이겨내고 핀 옥정호 구절초   | 109 |
| • 가을꽃의 천국인 한강시민공원      | 122 |
| • 산사에 핀 노랑 상사화         | 140 |
| • 두물머리의 삼 쌍둥이 연꽃       | 150 |
| • 더위에 지친 빅토리아 연꽃       | 158 |

---

|          |     |
|----------|-----|
| • 관곡지 연꽃 | 166 |
| • 양귀비꽃   | 176 |

# 01

매혹적인 여우꼬리

---

블로그 친구로 부터 선물받은 여우꼬리  
일부는 화분에 심었고 나머지는 정원 화단에 심었다.  
아파트의 거실 화분은 꽃이 빈약한데  
정원에 심은 여우꼬리는 지금 꽃이 한창이다.  
꽃이 참 매혹적이다.  
그래서 이름이 여우꼬리일까?  
누구를 유혹하려는 여우꼬리일까?





오늘 거실의 화분도 분갈이 해야겠다.





초롱꽃

가끔씩 들리는 주인이 밤길에 고생할까 봐  
밤낮 없이 불을 켜고 기다린다.



# 02

인동초로 만든 꽃 탑

---

인동초

또는 金銀花(금은화)라고도 부른다.  
필때는 흰색(銀)인데 질 때는 노란색(金)으로 변한다.  
그래서 금은화라한다.  
꽃이 피는 순서라면 은금화인데.....

한약재로

해열, 해독, 지혈의 효능이 있는 식물이다.



우리집 인동은 탑으로 만들었다.  
높이가 약 2.5m정도다.  
가운데에 쇠말뚝을 박고 인동 넝쿨을 감아서 올렸다.



이 인동꽃의 향기가 대단하다.  
집 앞 호수에서 낚시하던 사람들이 꽃 향기를 따라  
무단침입(?)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집 매발톱은 이제 작별을 할때다.



# 03

우리집 붉은 인동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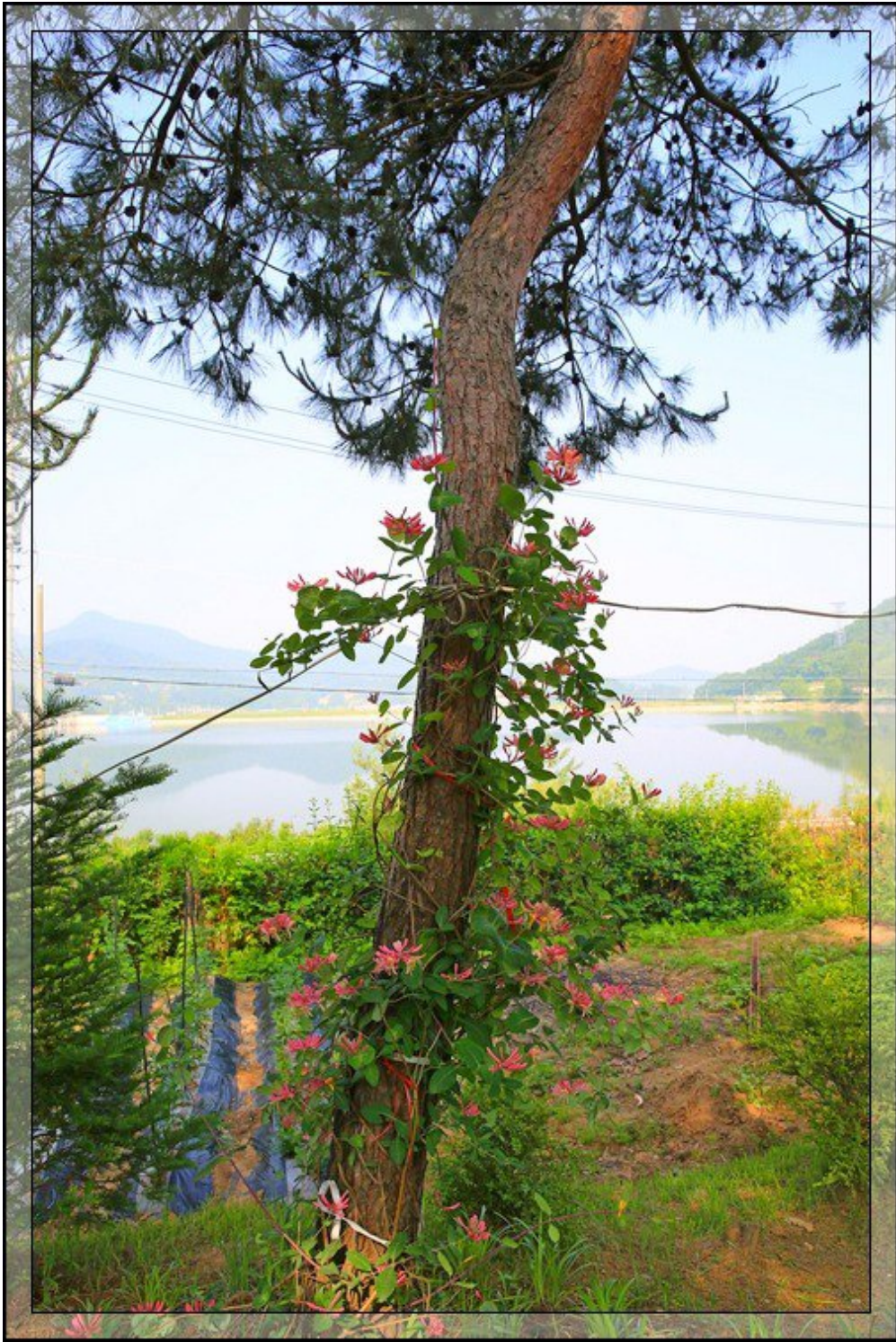
---

우리집에 붉은 인동초가 피었다.  
인동초에는 흰 인동초와 붉은 인동초가 있는데  
흰 인동초는 꽃이 필 때 흰색이었다가  
시들 때 즘에는 노란 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금은화라고도 부른다.  
흰 인동초는 씨가 날라가 싹을 틔우기 때문에 번식력이 강하다.  
그리고 추위에 강하여 쉽게 얼어죽지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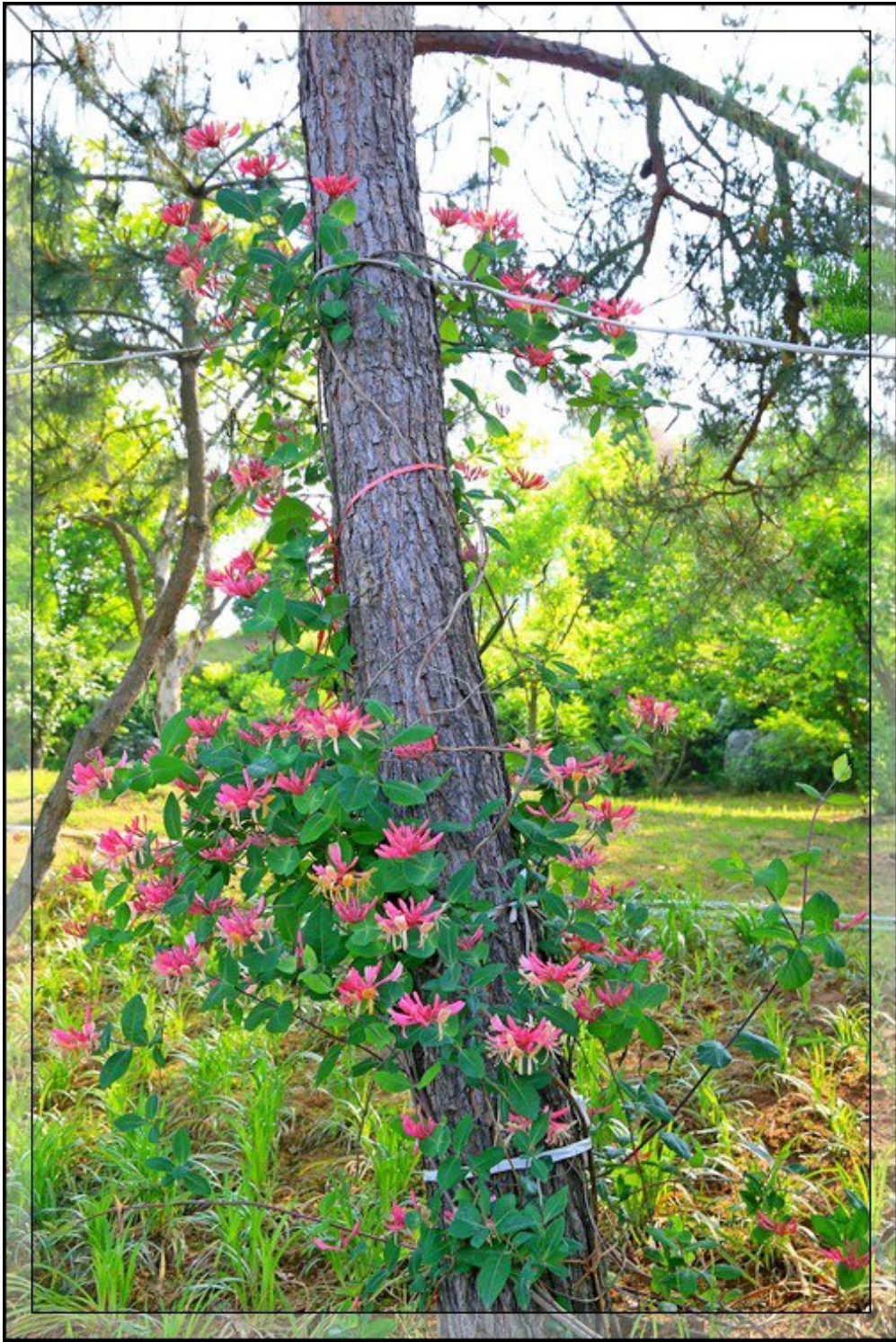
반면에 붉은 인동초는 번식 시키기가 어렵다.  
추위에도 약하다.  
그래선지 붉은 인동초 보기가 쉽지 않다.

우리집 하얀 인동초는 지주를 세우고 탑모형으로 올렸는데  
아직 꽃을 피우지 않고 있다.





우리집 정원의 소나무에 붉은 인동초를 올렸는데  
줄기가 나무에 달라붙지를 않아서 노끈으로 묶어준다.



소나무에 높이 올렸더니 길가는 사람들이 들어와 예쁘다며  
줄기를 좀 끊어 달라는 요구를 할 때는 난감하기도 하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붉은 인동초가 흰 인동초 보다 꽃이 화려하다.





# 04

## 관곡지 연꽃테마파크의 수련들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관곡지 연꽃테마파크  
이 곳의 연들은 두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기존의 우리나라 연 뿐아니라  
세계각지의 연을 들여와서 시험재배를하고 있다.  
그래서 연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종 수련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빅토리아 연등 희귀종의 연들도 이 곳에 있다.  
농업기술센터 연밭 주변으로  
농민들이 연근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연밭이 있다.  
이 연들은 여름에 피는 꽃이 큰 연들이다.



창포와 수련이 아름답게 어울어져 있다.



날씨가 좋아 꽃의 반영도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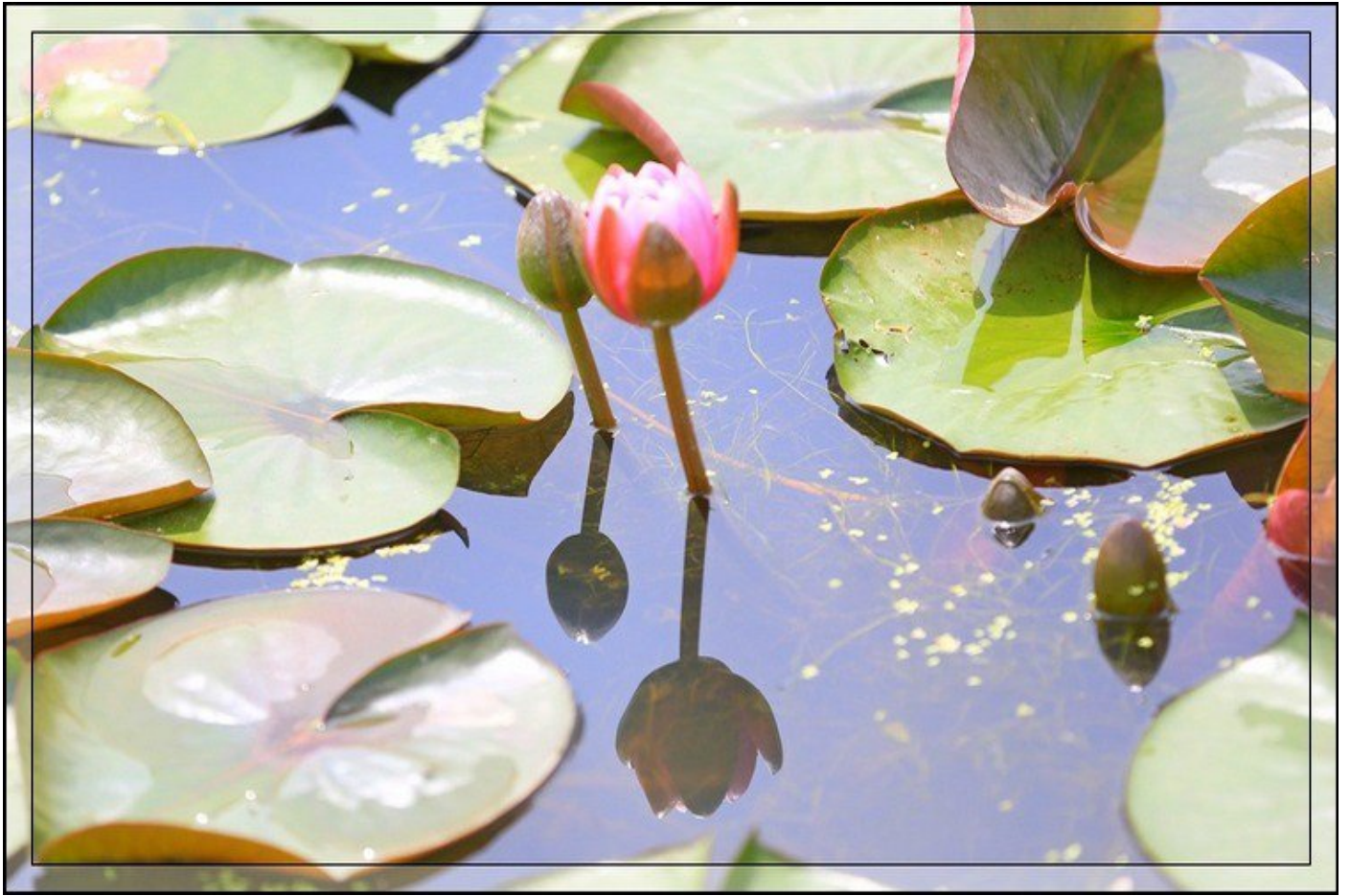
관곡지 연꽃테마파크의 수련들이  
지금 앞다투어 피고 있다.





어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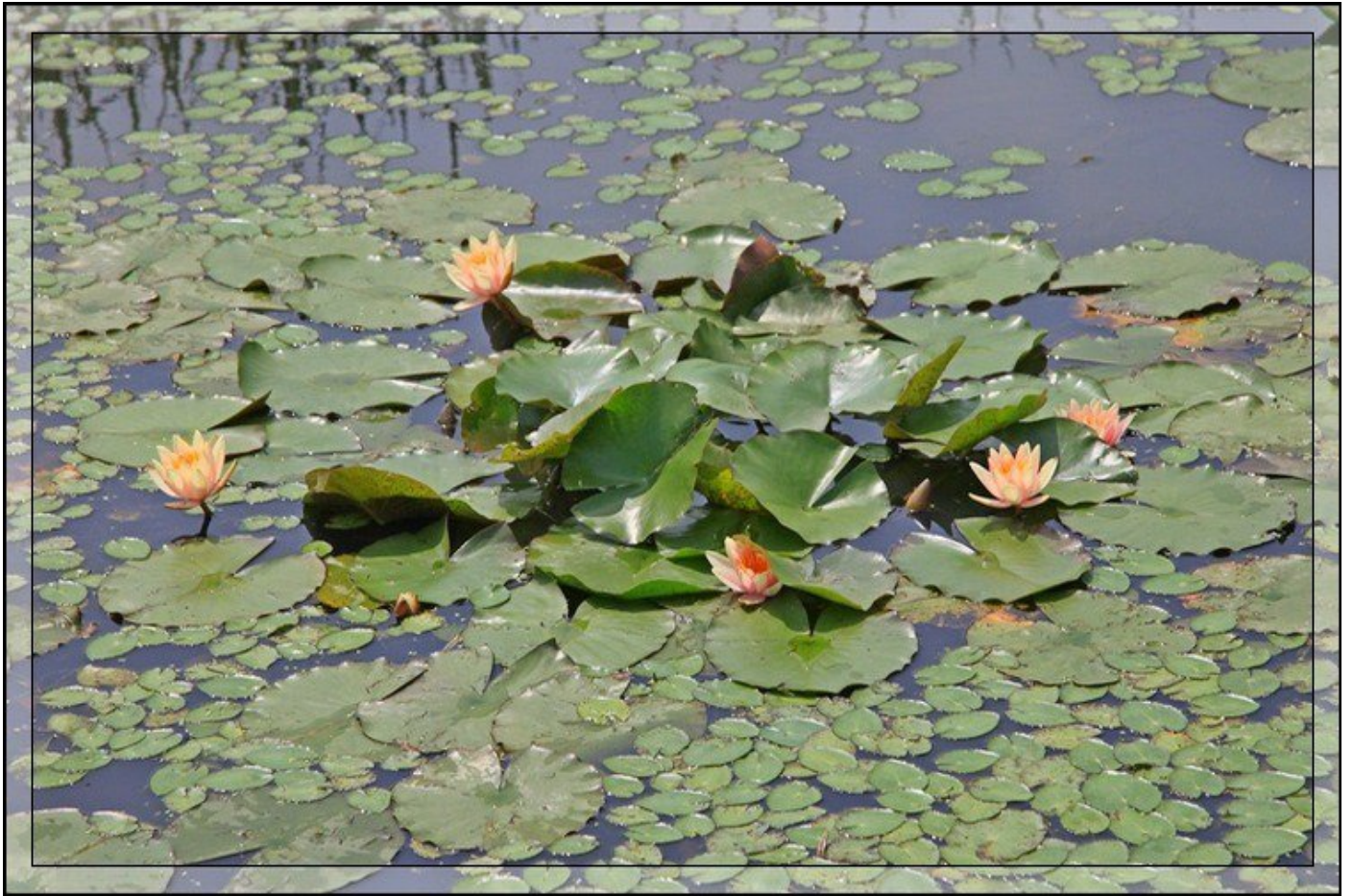
가장자리에 나서 뽑아낼 것 몇포기 얻어왔다.













정리된 구획안에 여러 종류의 연을 시험재배한다.









여름에 피는 하계연으로 뿌리를 먹는 연이다.  
이제 잎이 올라오고 있다.





테마파크 옆의 연 재배농가가 연 뿌리를 캐고 있다.



이 논은 연을 중간 중간에서 캐내고  
남은 연이 옆으로 번지게 놓아 두었다.  
남겨논 연은 다음 해에 수확 할 모양이다.

# 05

우리집 천사의나팔

---

작년 이른봄 성당교우가 운영하는 농장에 들렀다가  
천사의 나팔 한그루를 얻어왔다.  
여름 내내 풍성한 꽃을 피웠는데 추위에 약하다 하여  
작은 가지를 잘라내고 아파트 복도에 놓아두었다.  
상태가 좋지않아 거실에 들여놓고 영양을 공급했더니  
꽃 한송이가 피었다.  
다시 정원에 내다 심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거실에 두어야 할지 고민중이다.  
블로그에서 어떤분의 글을 보니 꽃에 독성도 있는데....  
꽃이 탐스럽고 아름답다.  
향도 아주 좋다.  
앞이 넓어서 물을 자주 주어야 한다.







\*\*\*\*\*



개화전의 모습



# 06

강화 정수사의 현호색

---

강화 정수사 앞에는  
현호색과 상사화가 많이 피는 데  
상사화는 이제 앞이 나오니  
개화시기는 아직 멀었고  
현호색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꽃이 시들어 있었다.





# 07

풍도에서 만난 평의 바람꽃

---

켜의바람꽃은 우리나라 각처의  
산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숲 속의 나무아래에서 주로 자라며  
양지와 반그늘에서 볼 수 있다.  
키는 10~15cm이고, 잎은 한 줄기에서 3갈래로 갈라진다.  
꽃은 흰색이고 긴 줄기 위에 한송이만 자라는데 지름은 3~4cm이다.

풍도의 켜의 바람꽃은 변산 바람꽃에 비해 개체수가 많지 않다.  
변산 바람꽃은 무리지어 핀 군락이 많았지만  
켜의 바람꽃은 변산바람꽃 주위에 몇그루씩 피어있었다.



이 품종은 수분의 가늠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주변에 수분이 많이 없으면 퍼져 있던 잎이 말려서  
수분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주위의 다른 변산바람꽃은 잎이 싱싱해 보이는데  
평의 바람꽃은 잎이 말려있는 것을 볼수 있다.





뿌리는 긴 하나의 괴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지하 약 10cm가량에 묻혀 아래로 길게 뻗어 있다.  
주로 관상용으로 쓰이며 뿌리는 약용으로도 쓰인다.







# 08

탐방객을 반기는 풍도복수초

---

대표적인 봄의 전령사인 복수초  
풍도에 핀 복수초는  
노랑 저고리에 녹색치마를 입고  
이 섬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다.  
아침의 떠 오르는 햇살에 방긋 웃는 해맑은 꽃  
노루귀와 바람꽃을 이웃하고  
바닷바람과 새 소리에 응답하며  
봄노래를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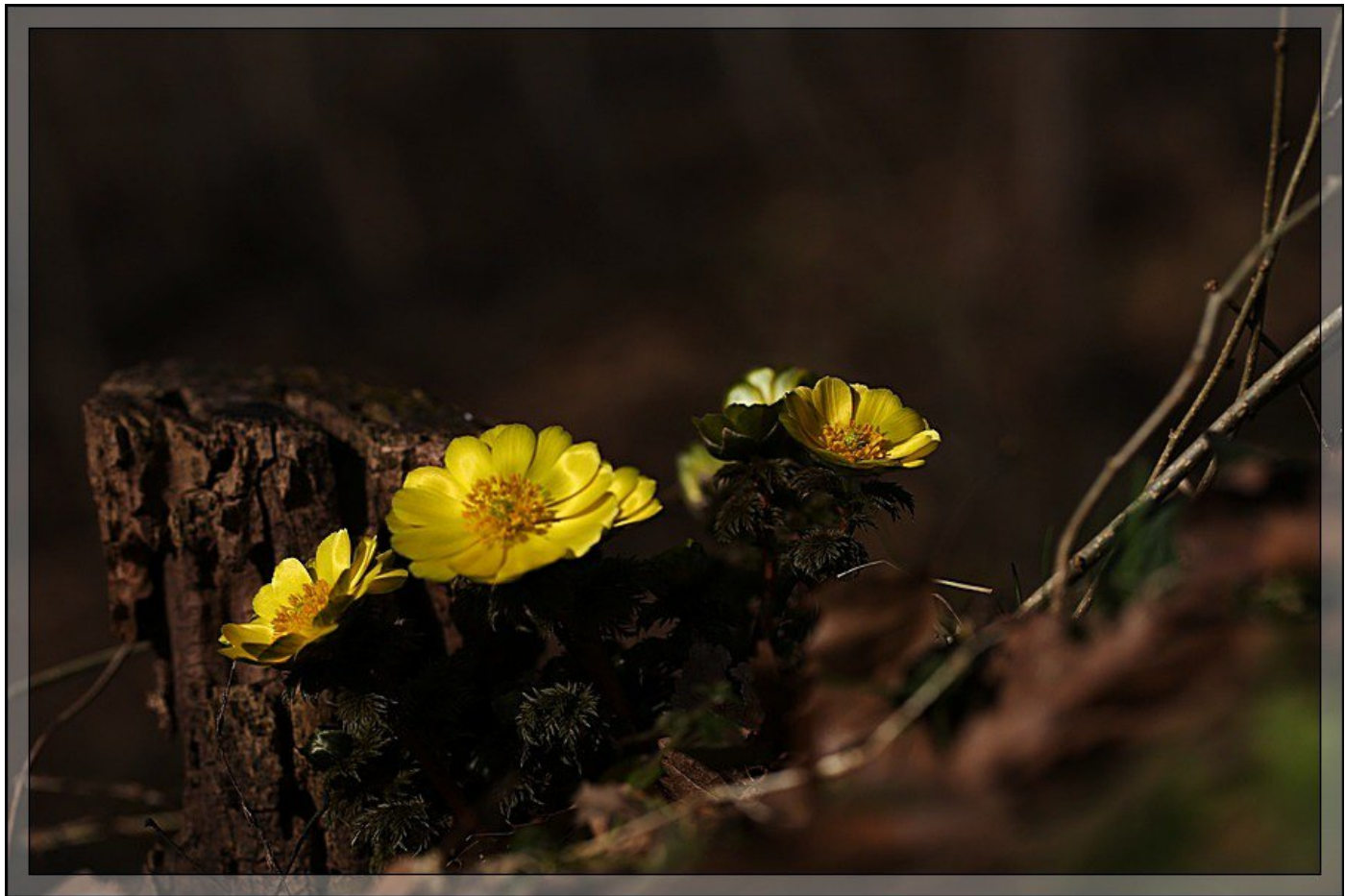


아침 햇살을 받은 복수초가 꽃 봉오리를 열기시작했다.





복수초와 이웃한 켕의 바람꽃







간밤에 내린 서리가 채 녹지않고 꽃 봉오리에 서려있다.



피사체인 복수초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은 서있고 가랑이 사이에 카메라를 들이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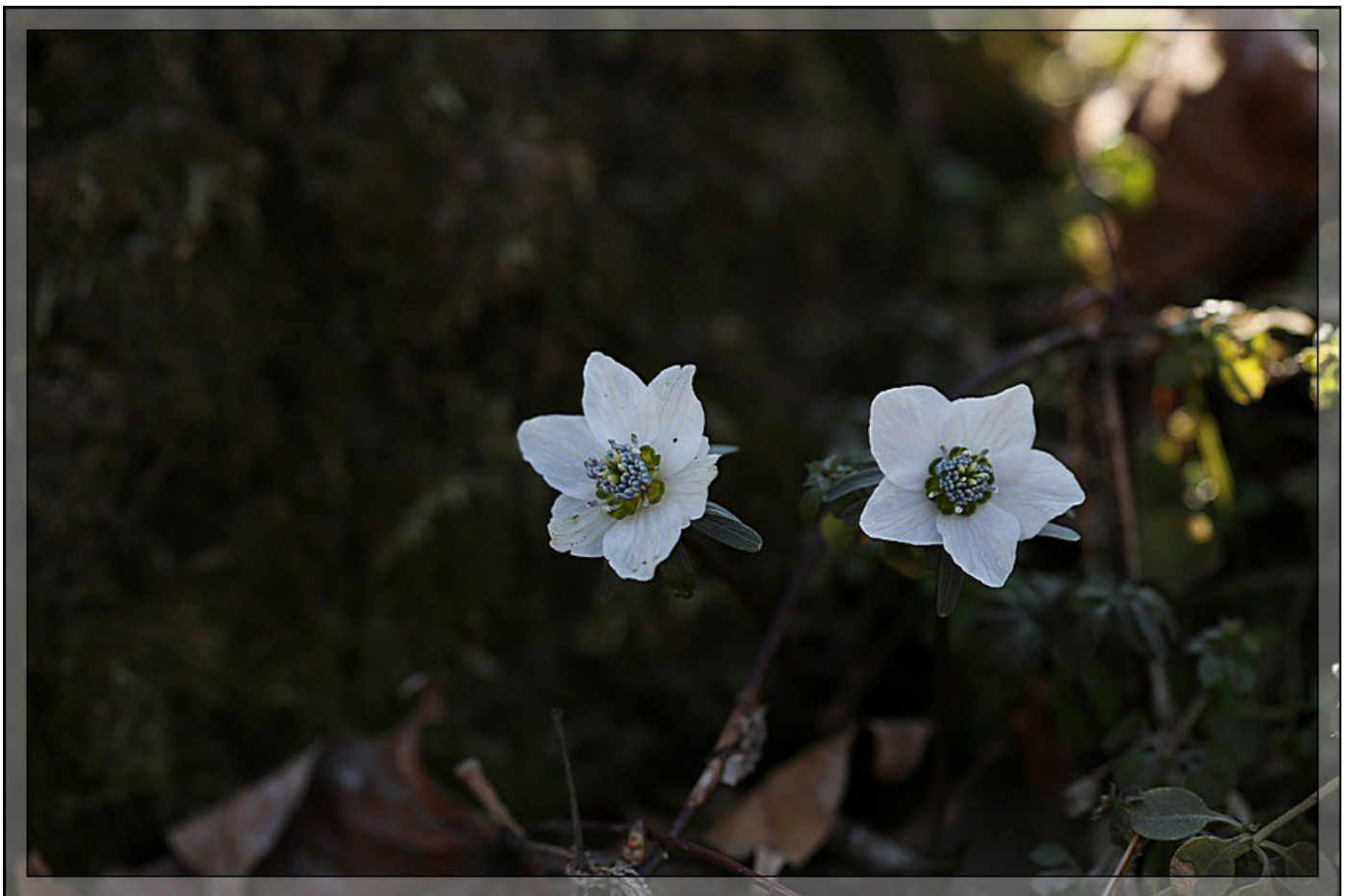
# 09

풍도에 핀 변산바람꽃

---

변산바람꽃은  
한라산, 지리산, 마이산과 변산 지방의  
낙엽 수림 가장자리에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습한 지역과  
반그늘 또는 양지쪽에서 자란다.  
키는 5~8cm가량이고,  
잎은 길이와 폭이 약 3~5cm이고  
5갈래의 둥근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갈라지는 것은 새의 날개처럼 갈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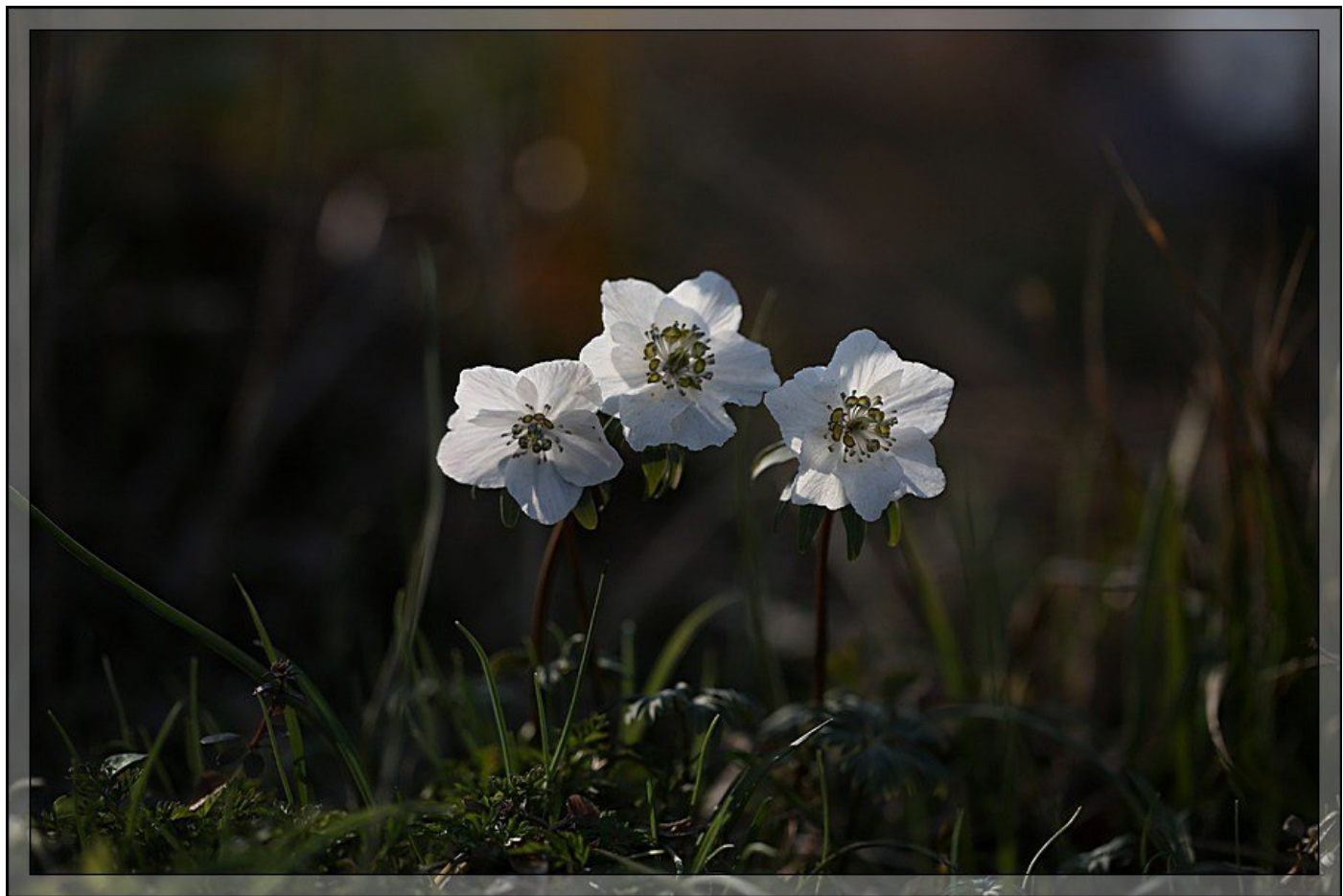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인 2~3월에 꽃이 핀다.





꽃은 흰색으로  
꽃의 너비는 1~3cm 가량이고,  
꽃자루 안에는 가운데 암술과  
연녹색을 띤 노란색 꽃이 있다.  
열매는 4~5월경 갈색으로 달리고  
씨방에는 검고 광택이 나는 종자가 많이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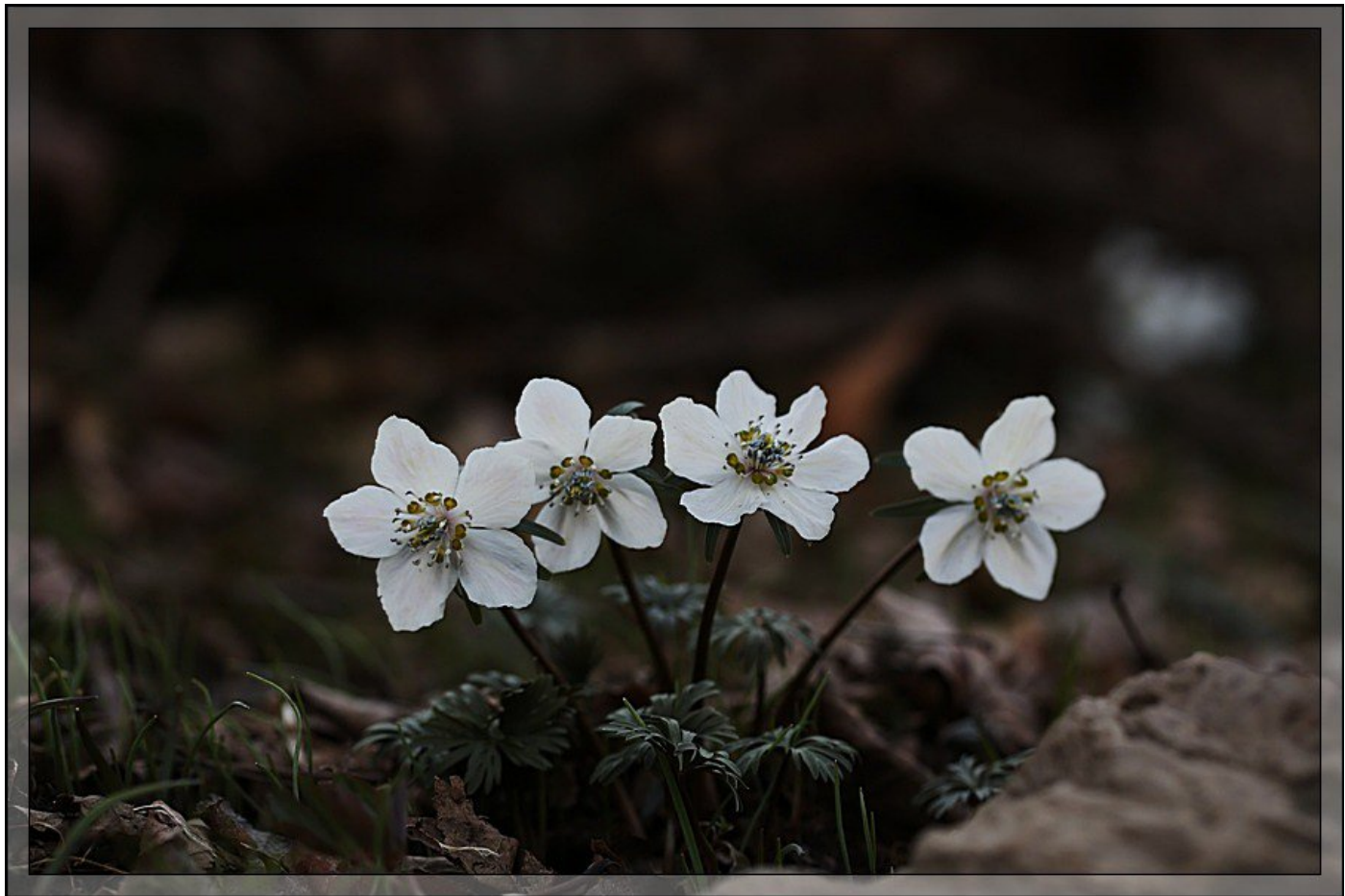




이른 봄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피기 시작하며  
봄을 알리는 복수초와 함께 대표적인 봄을 알리는 꽃이다.  
최근에는 일부 내륙지방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보고는 있지만 개체수가 작다.  
주로 관상용으로 쓰인다.







안산시 풍도에는 변산 바람꽃이 무더기로 피어있다.

풍도의 변산바람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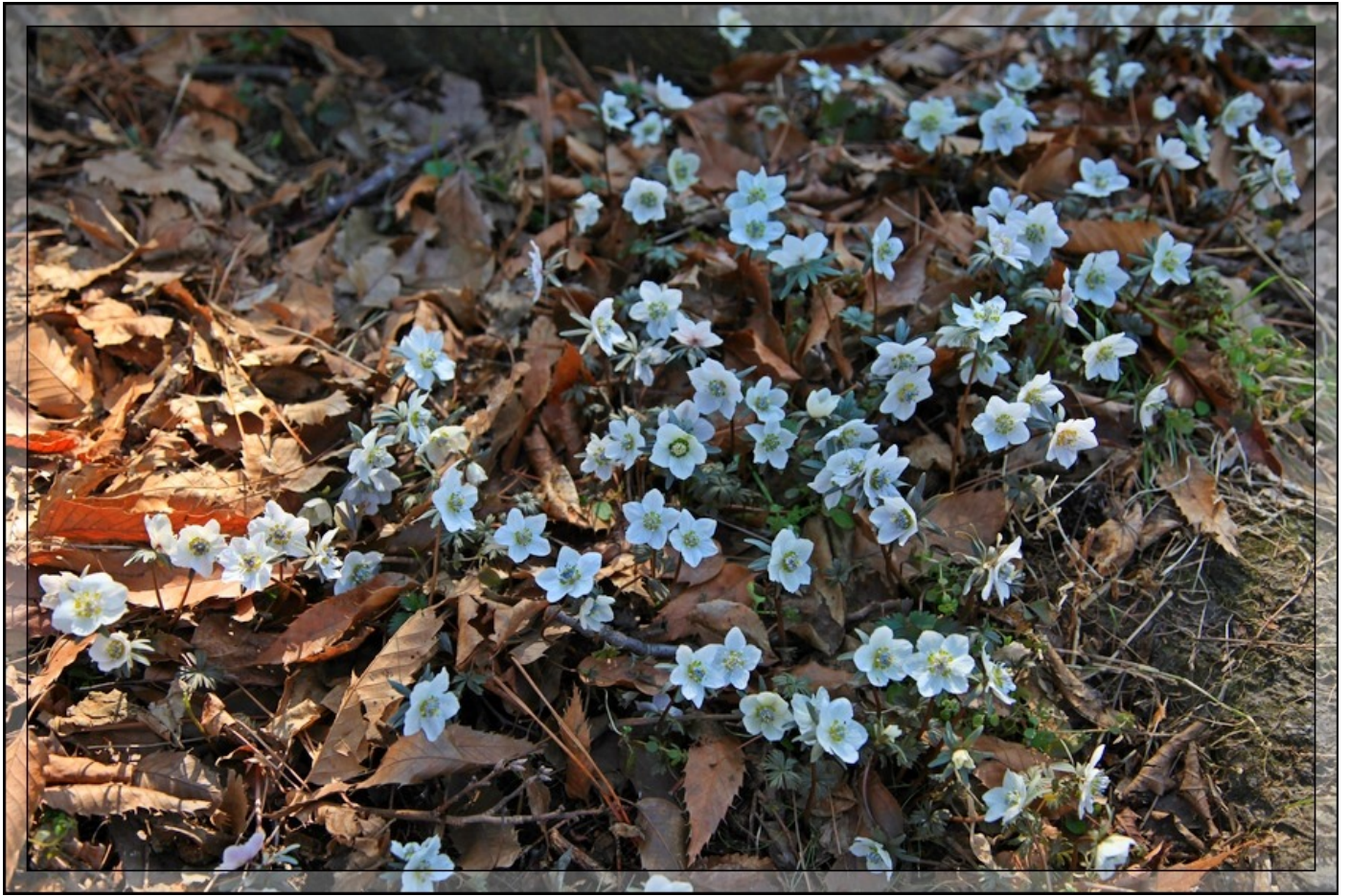
다른지방의 꽃보다 꽃잎이 조금 크다.

그래서 풍도 사람들은 이 변산 바람꽃을

풍도바람꽃이라고 부른다.









설명자료 : 야생

화도감

# 10

우리집 복수초와 바람꽃이 피었네.

---

강화섬터의 정원에  
복수초와 바람꽃이 피었다.  
복수초는 두송이가 피었고  
바람꽃은 한송이가 피었다.  
복수초는 앞으로 몇송이 더 필것 같고  
바람꽃은 한송이가 더 올라오고 있다.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여린 몸으로 이른 봄에 꽃을 보여주는  
야생화의 끈질긴 생명력에 감동이 느껴진다.

남녘의 고향친구가 보내준 꽃으로  
추운곳으로 입양된 이 꽃들  
지난 겨울 무사히 넘겨준 것이 대견스러울 뿐이다.



복수초는 꽃송이도 크고 상처도 없다.  
완벽한 꽃송이다.





바람꽃의 꽃잎에 상처가 보인다.

그래도 대견하다.

# 11

100Km를 달려서 찍은 해국 한송이

---

친목모임으로 정읍산외에 다녀오는 길에  
충남 태안의 학암포로 향했다.  
학암포의 해국을 담아보려는 마음에....  
이미 해국의 철이 지나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일단 가보기로 하고 네비의 안내에 따라  
해미IC로 빠져 나오면서 보니 남은 거거리가 52Km다.  
왕복으로 104Km 만만치않은 거리이다.

학암포에 도착은 했으나 막연히 바닷가의 바위틈에  
자생한단 말만 들었지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했다.  
몇사람에게 물어도 모른다.  
학암포에서 오래 살면서 장사를 한다는 수퍼의  
아주머니에게 물었더니 대충 장소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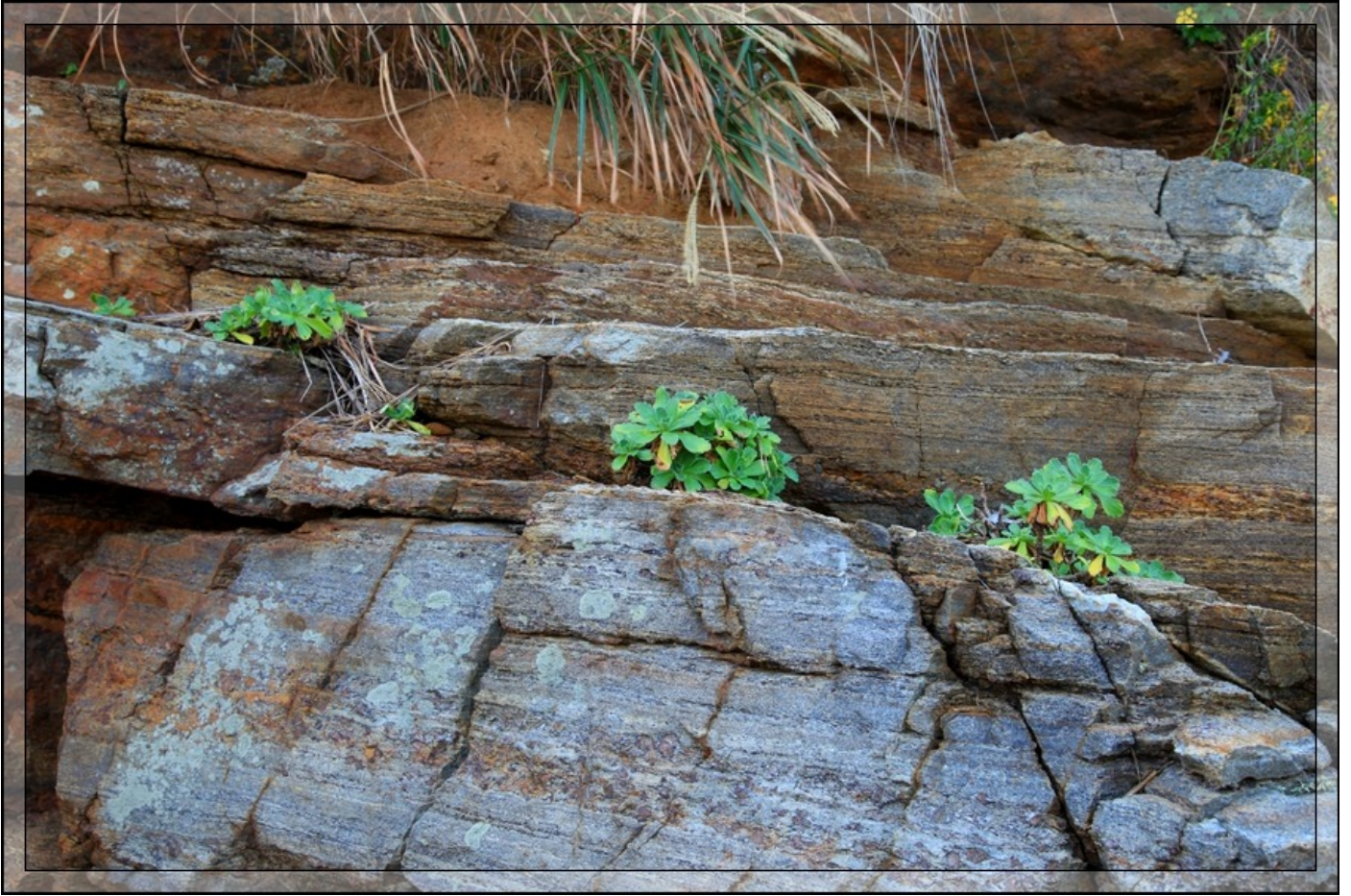
알려준대로 바닷가 바위틈을 찾아 돌아 다녔더니  
꽃은 이미 지고 잎들만 무성하게 남아있는 해국을 발견했다.  
그래도 혹시나해서 이곳 저곳 뒤지고 다니다가  
피어있는 해국 한송이를 발견했다.  
개으름뱅이로 다른꽃 다 진후 핀 해국이 더없이 반가웠다.



바닷가의 사나운 바람을 이겨내고  
매마른 바위틈에서 자라고 꽃을 피우는  
해국의 강인함을 보려고 찾아가서  
이 개으름뱅이 해국 때문에 헛걸음을 하지는 않았다.



해국은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바닷가에 자생하는 다년생 초본이며  
꽃은 10월경에 핀다.  
겨울에도 잎이 전부 말라 죽지않고 일부는 상록의 형태로 월동한다.









# 12

산사에 핀 구절초(영평사)

---

충남 세종시 장군면 소재 영평사

절의 규모는 크지않다.

이 영평사는 지금 가을 축제가 진행중이다.

10,6~21 까지가 축제기간이고

이 기간 영평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절에서 점심을 제공한다.

(홈피에는 무료라고 했는데 다녀온분 말은 1,000원 받는다네요)

영평사의 주위는 온통 구절초로 덮여있다.

산사 안의 마당 구석 구석과 뒷산에 구절초가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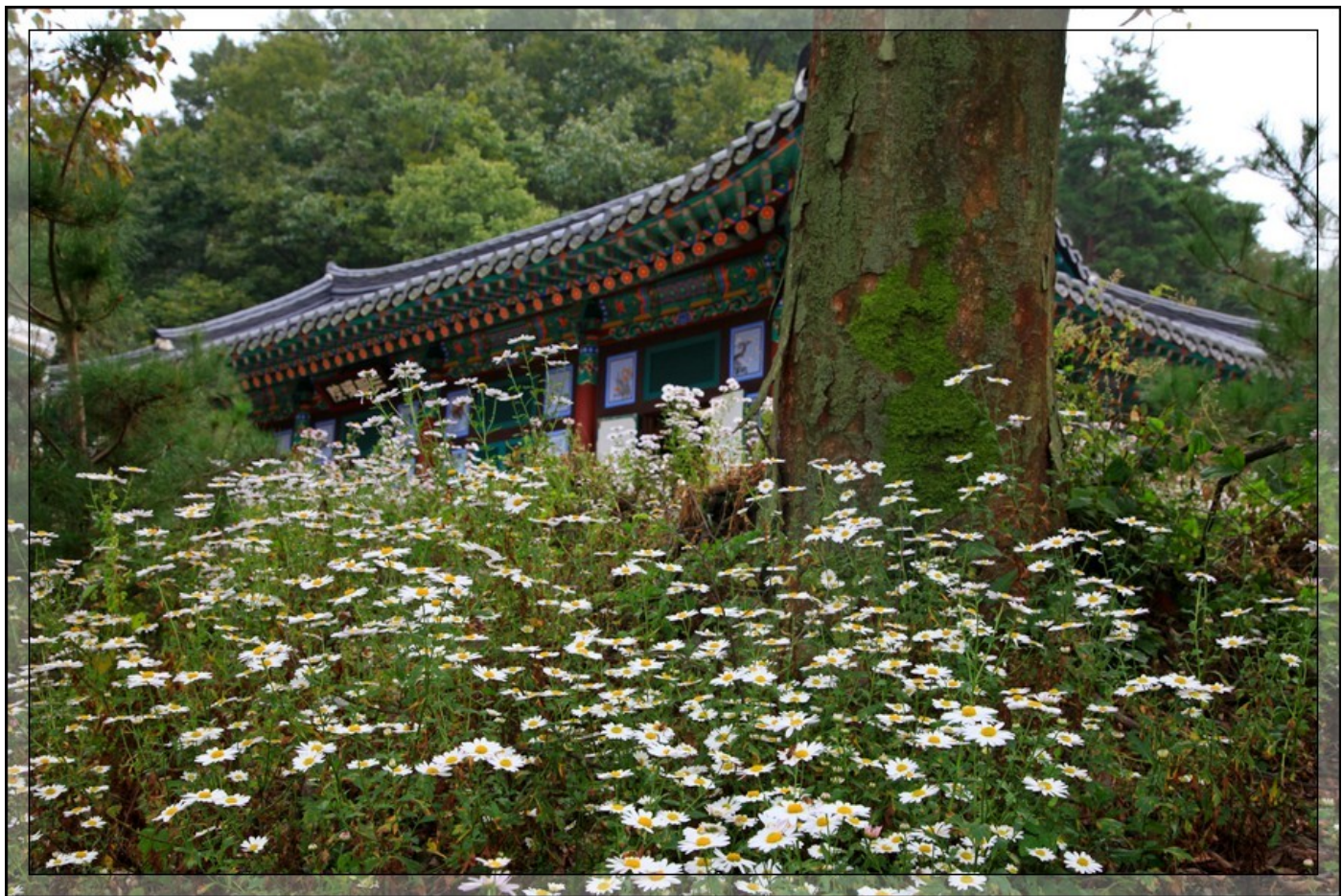
뒷산의 구절초는

경사지의 흙이 폭우에 유실되어 여기 저기 이 빠진 모습을 보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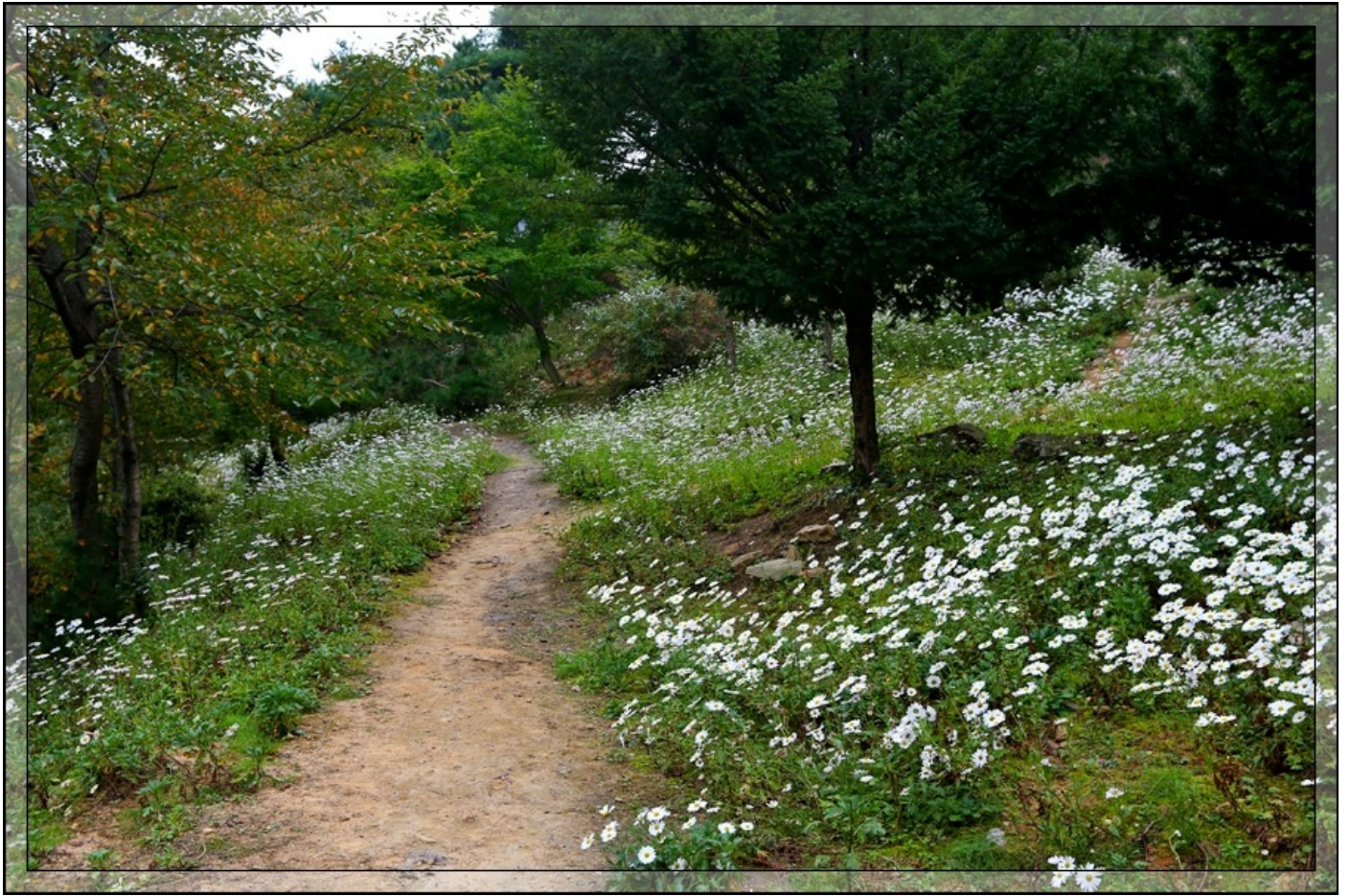
다른 곳의 구절초 보다 꽃이 크고 싱싱해서 좋았다.

영평사는 문화행사가 많은 사찰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절 입구의 민가 마당에 핀 다알리아

# 13

고난을 이겨내고 핀 옥정호 구절초

---

작년 이맘때 옥정호 구절초 발은 꽃이 무성하고  
아침 안개가 소나무 숲에 퍼져 있어  
신비감까지 느낄수 있어서 참 좋았다.  
단체출사에 참여하여 새벽에 국사봉에 올랐지만  
질은 안개로 운무나 일출을 볼 수 없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예정인 구절초 발으로 갔어야 하는데  
이리저리 시간을 허비하고 10시가 넘어서야 구절초 발에 도착해보니  
안개는 모두 사라지고 밋밋한 구절초만 있을 뿐이었다.  
단체출사를 꺼리는 이유 알만 하였다.

긴 가뭄에 구절초가 많이 말라 죽어서  
중간에 상당한 량의 모종을 사다가 심었다 한다.  
그래선지 구절초의 개화가 고르지를 못하다.  
태풍에 많은 소나무가 쓰러져서  
배어낸 그루터기가 이곳 저곳에 남아있다.

그래도 한창 피어나고 있는 구절초는 아름다웠다.  
축제전이라서 인지 아직은 사람들에게 짓밟힌 꽃들도 없다.  
그 긴 가뭄과 큰 나무도 넘어뜨린 태풍을  
이겨내고 핀 구절초의 강인한 삶의 의지를 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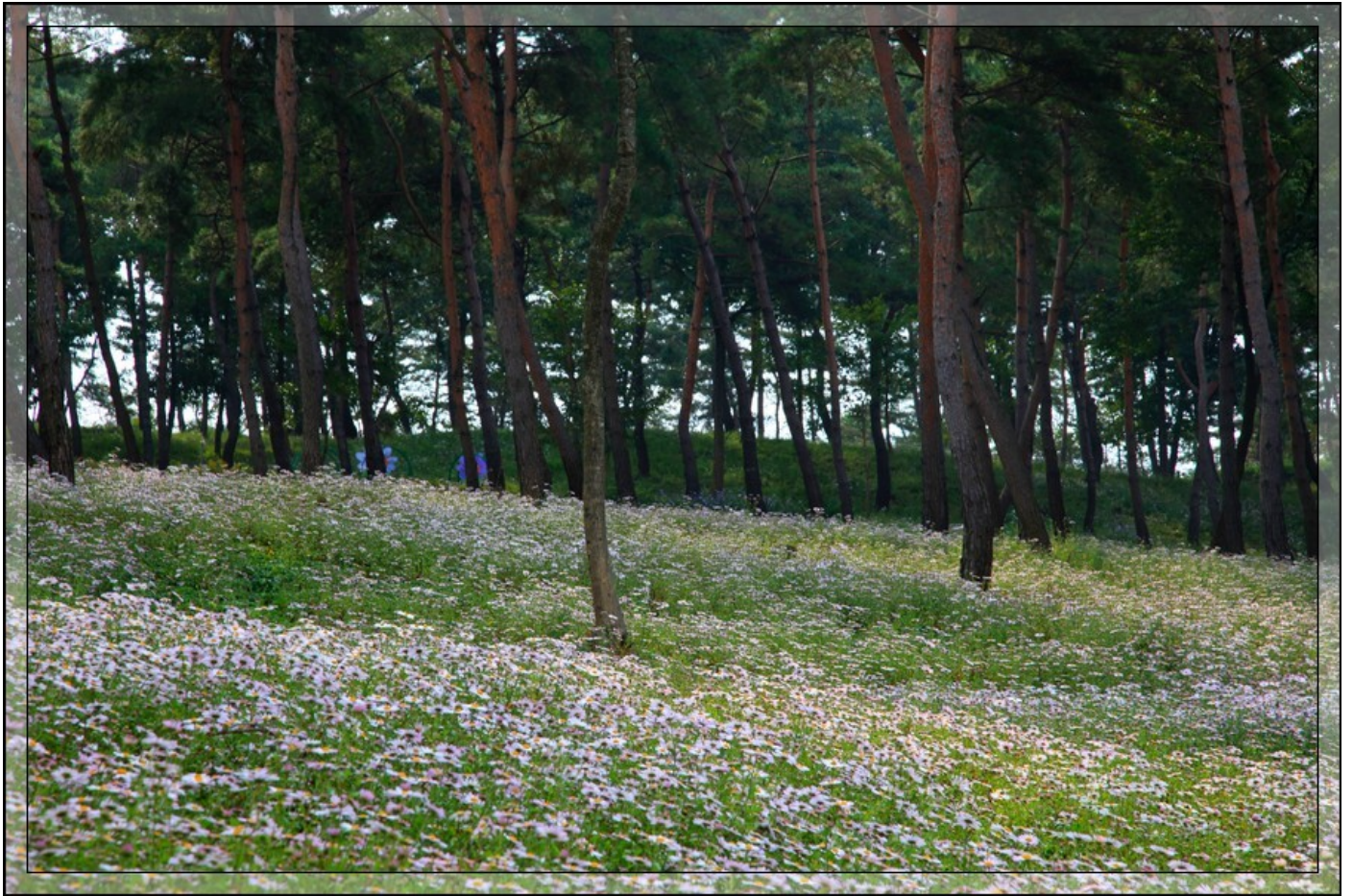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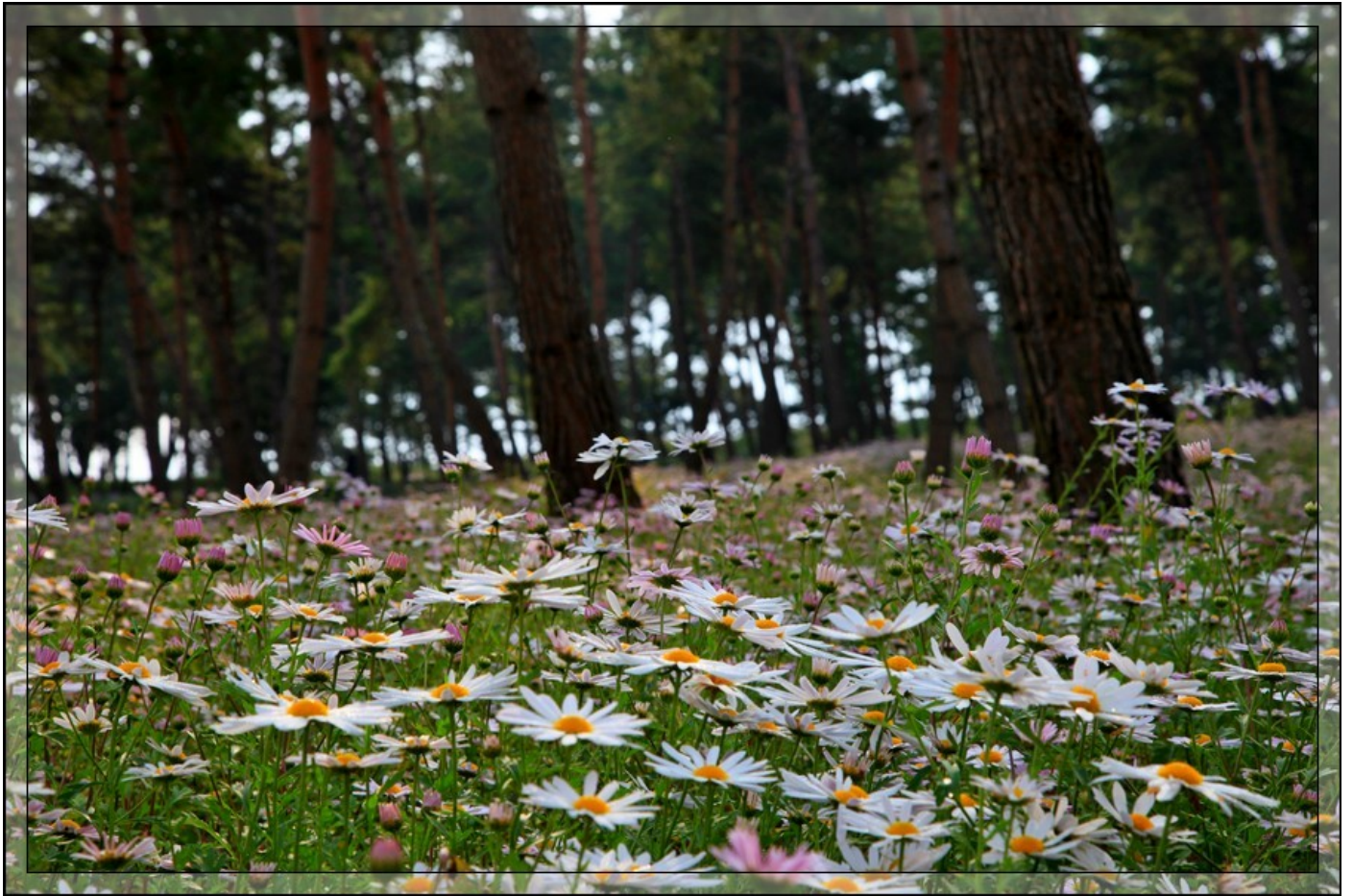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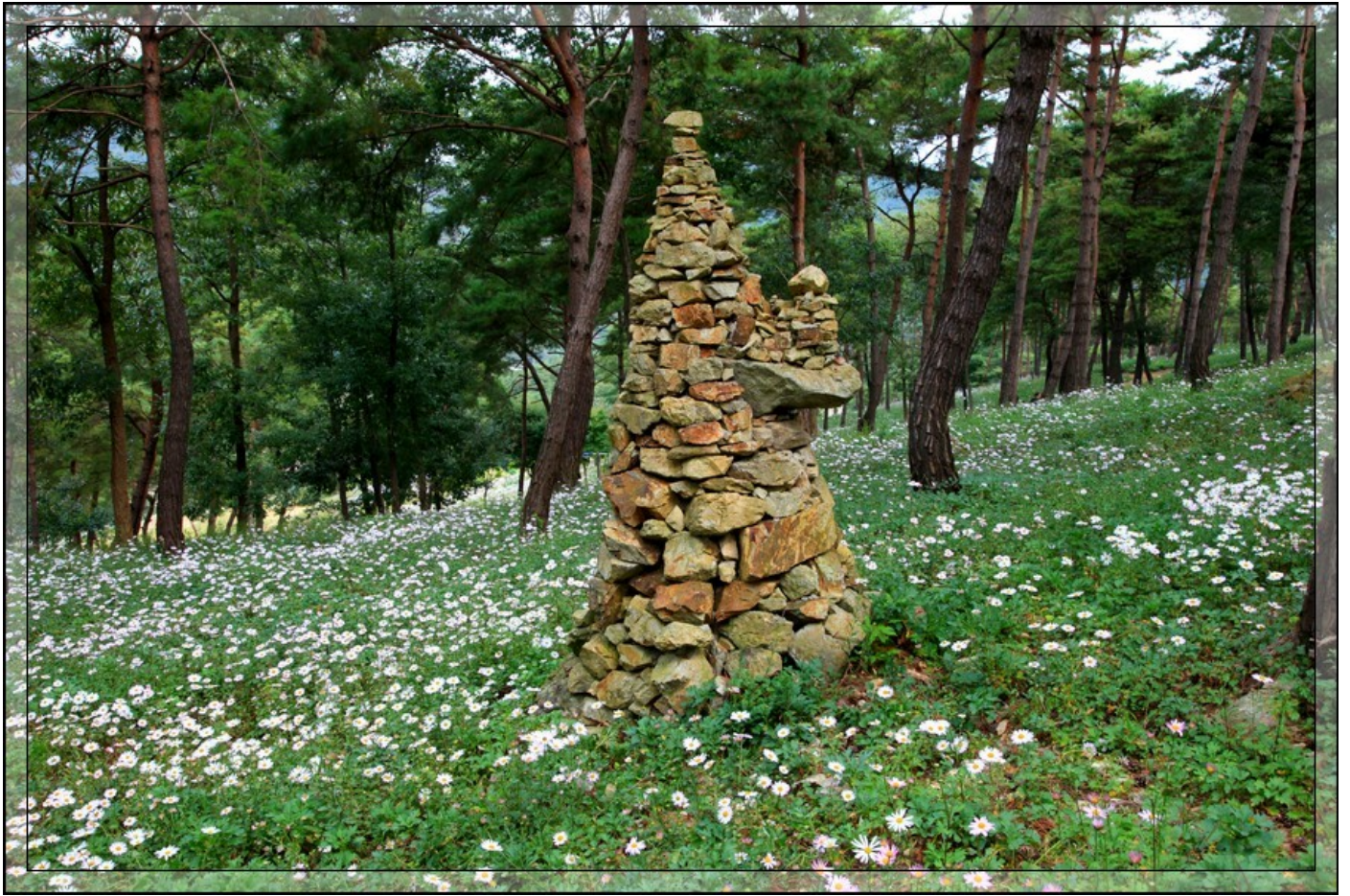


















# 14

가을꽃의 천국인 한강시민공원

---

한강변의 대표적인 꽃의 천국  
봄에는 노란 유채가 공원을 가득 채우고  
가을에는 하얗고 붉은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거리는 구리 한강시민공원  
오늘의 한강시민공원은 구리시민 만의 공원이 아니고  
수도권의 동북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휴식처이다.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스모스축제가 열리고 있다.  
축제 기간에는 몰리는 사람들 때문에 번거로울 것 같아  
앞 당겨 이곳을 찾았다.  
코스모스는 아직 피지않은 것이 핀것보다 많아 보인다.  
아마도 축제기간이 끝난 후가 더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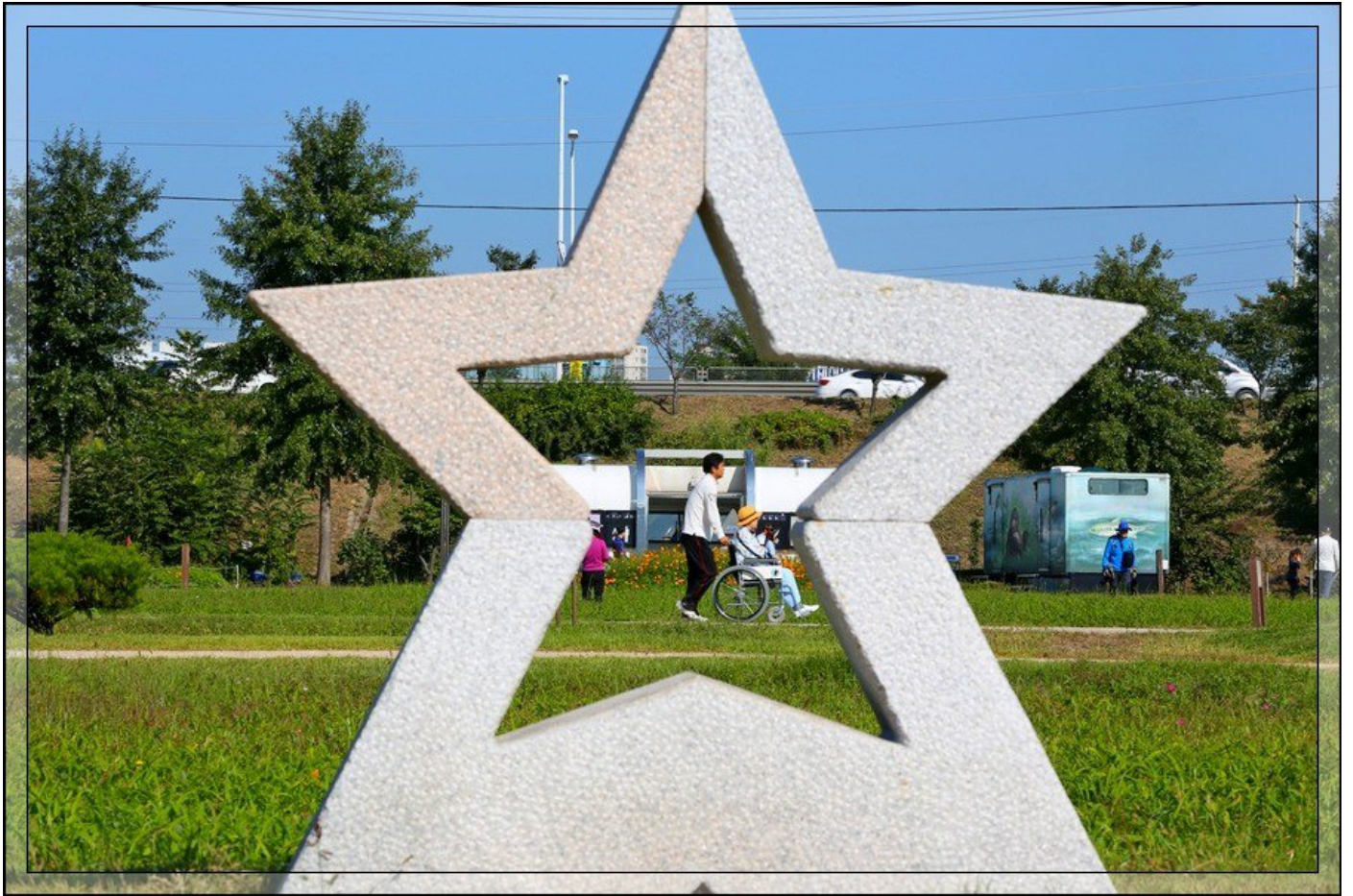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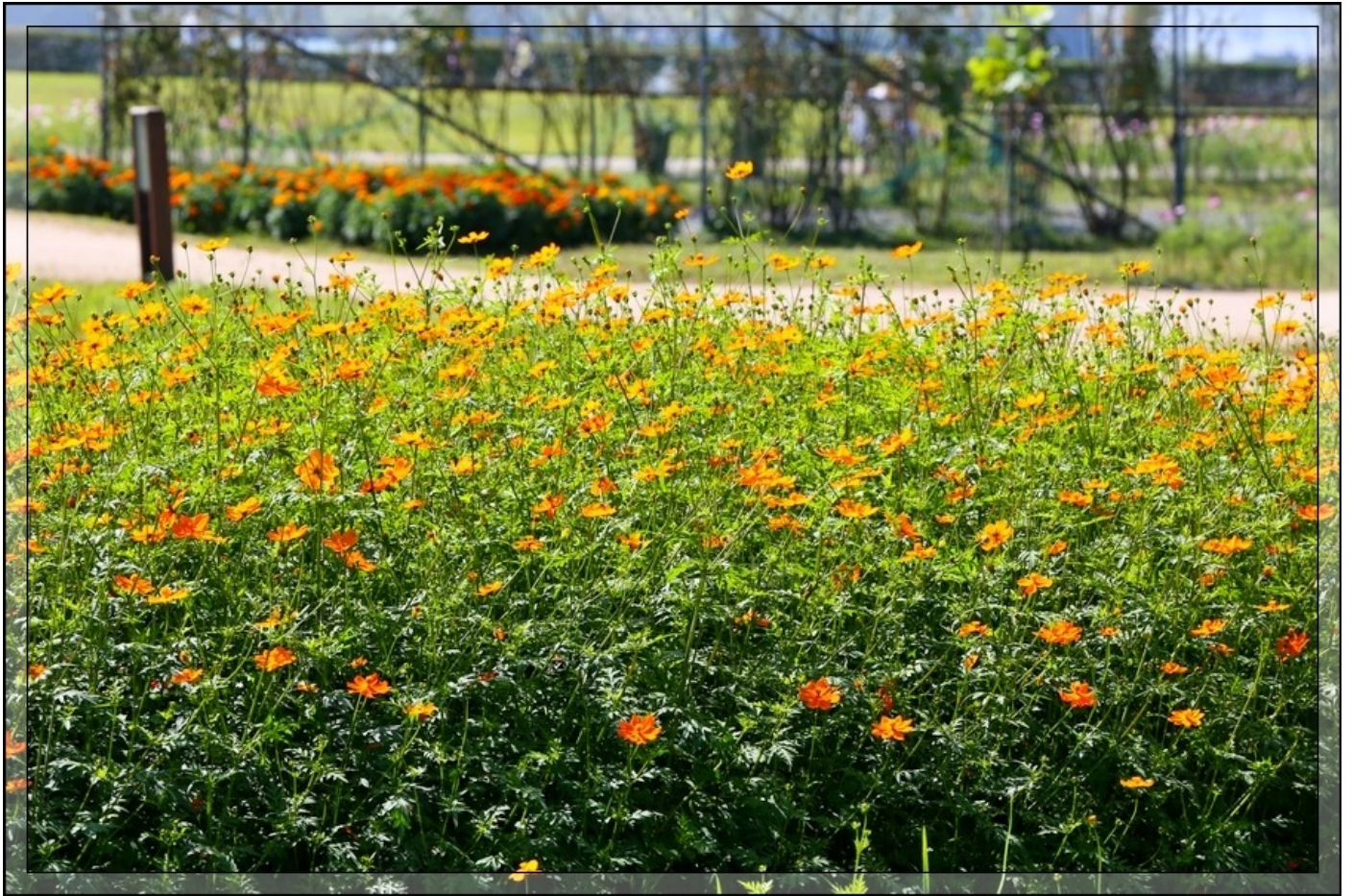












한강시민공원에는 코스모스 외에도  
많은 종류의 꽃이 제각각의 자태를 뽐내고 있다.









요즘 보기힘든 목화꽃도 보인다.



# 15

산사에 핀 노랑 상사화

---

상사화를 葉花不見草라고도 한다.  
잎과 꽃이 서로 볼수없는  
그래서 이룰수 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 상사화이다.

봄에 나온 잎은 6~7월경에 사그러지고  
꽃은 8월 부터 피기 시작한다.  
북쪽 지방이 먼저피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디핀다.

아직도 가을 장마가 그치지않고 이슬비가 내리는 날  
노랑상사화 핀 곳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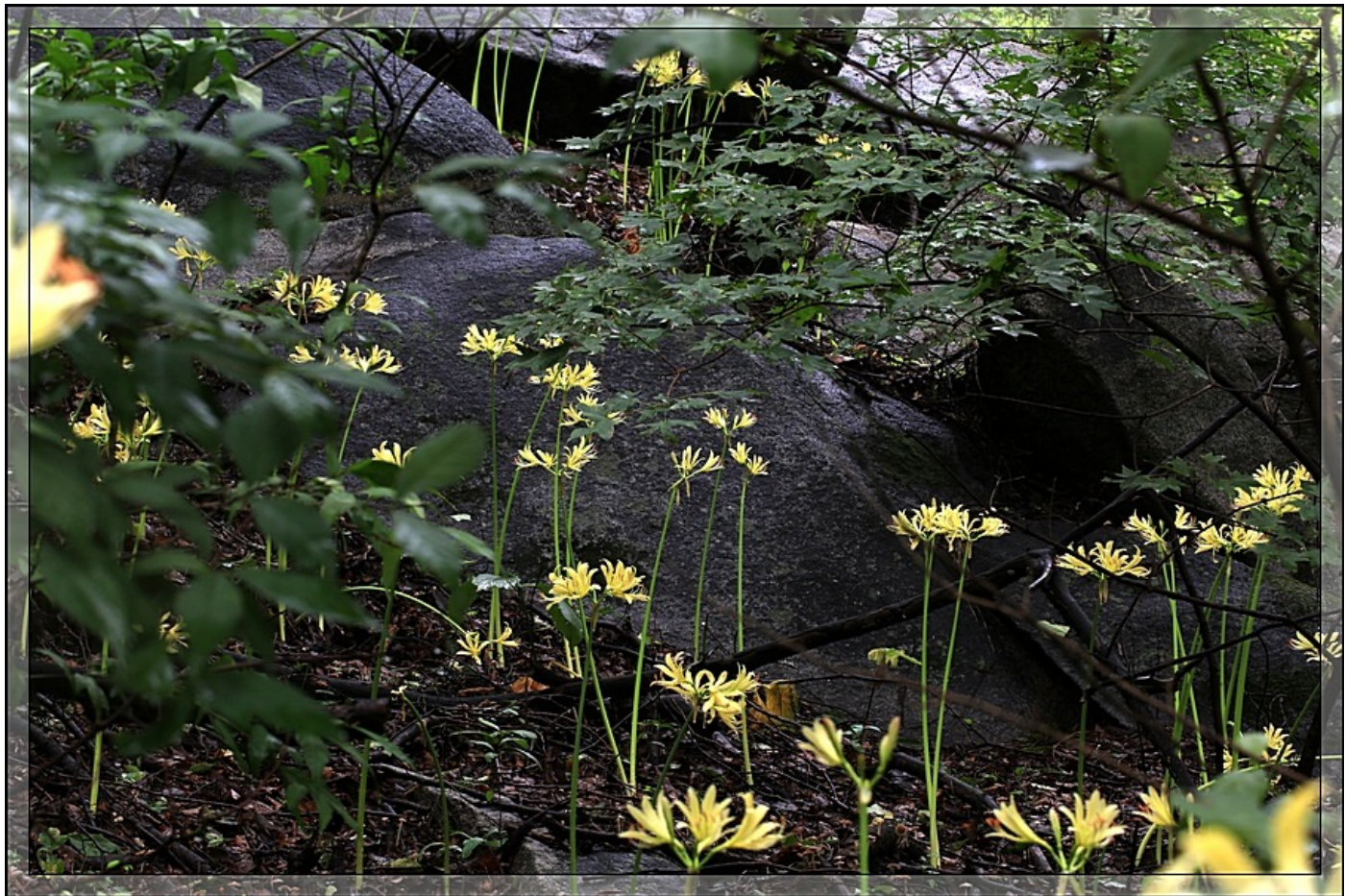


비가 그치지않은 이른 시각이라선지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서로 만나지 못하고 애를 태우는 영혼들을 위로나 하려는 듯  
절에서 들려오는 목탁소리만 흐르는 개울 물소리와 함께  
산사 주위를 감돌고 있다.















# 16

두물머리의 삼 쌍둥이 연꽃

---

두물머리를 찾았을 때 물안개도 없고  
하늘은 뿌옇게 흐려 있었다.  
하지만 연꽃들은 다른 곳의 연보다 늦게 피어선지 싱싱해 보였다.  
연꽃이야 여기 저기서 많이 담았기에 크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왕 온길에 담아 보자고 돌아 다니다가  
색다른 연꽃 한송이를 발견했다.  
꽃대는 하나인데 꽃이 두송이가 달려있다.  
연꽃에도 삼 쌍둥이가 있나보다.  
돌연변이겠지만 참 신기하였다.  
이 날의 두물머리 출사는 이 쌍연이 수확이었다.













# 17

더위에 지친 빅토리아 연꽃

---

밤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빅토리아 연꽃  
남 아메리카가 원산지다.  
꽃이피면 여왕의 왕관과 같고  
이 연꽃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바쳐졌다 하여  
빅토리아 연꽃이라 한다.  
밤에 피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흰색으로 피다가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하여  
다음날 밤에는 완전히 붉은 색으로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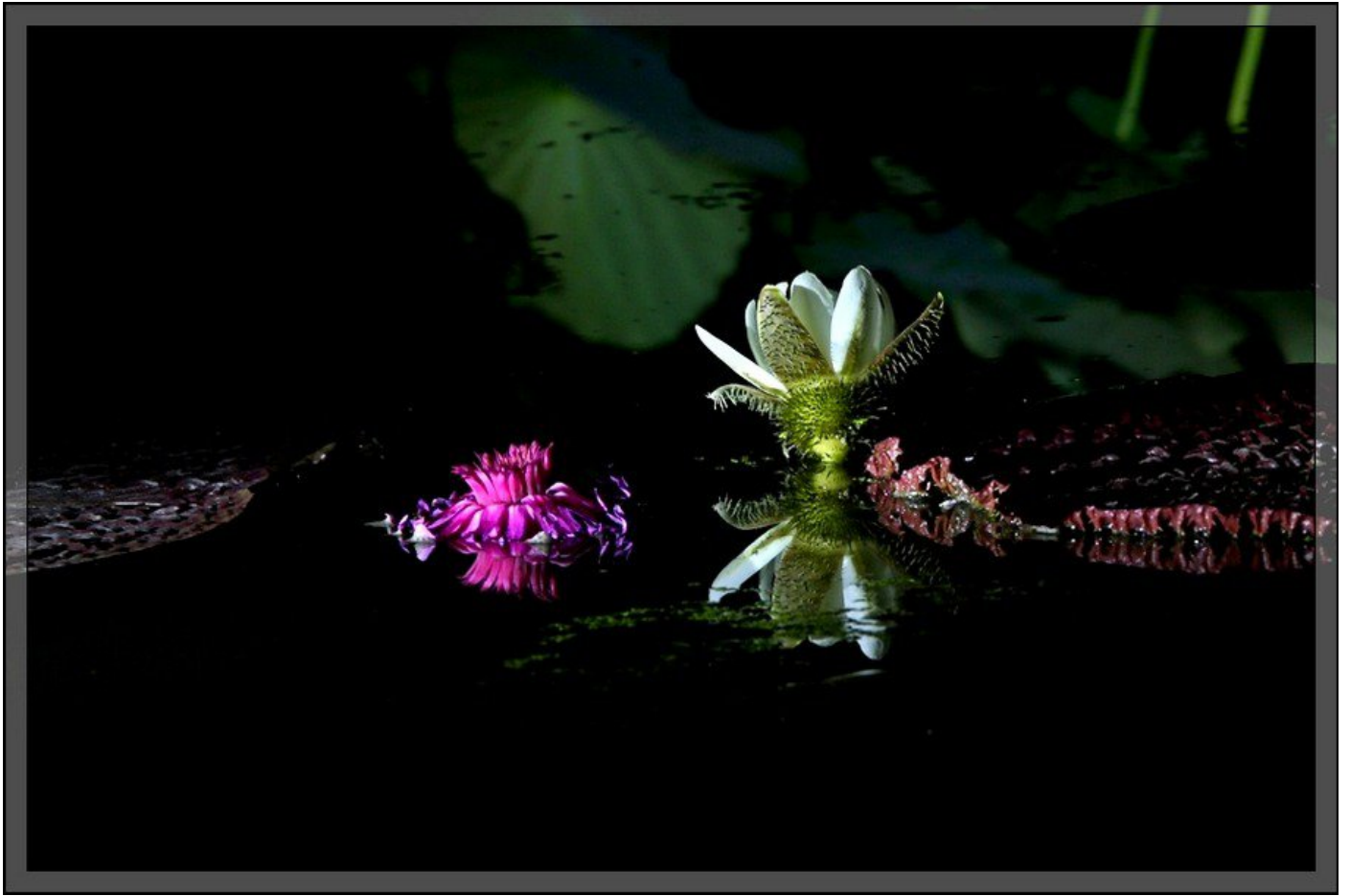
관곡지의 빅토리아 연꽃  
계속되는 폭염과 밤에 사진사분들의  
무분별한 후레쉬 불빛에 스트레스가 쌓여  
왕관을 만들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아 버린다.  
안타까운 일이다.  
9월까지의 계속 핀다하니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찾는것이 좋을 듯 하다.







좀 빈약하지만 꽃이 왕관의 모양을 만들고 있다.





# 18

관곡지 연꽃

---

수도권에서 큰 규모의 연밭이 관곡지이다.  
지역에 따라 연의 색깔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관곡지의 연꽃은 규모도 크고 꽃도예뻐서 많은 진사님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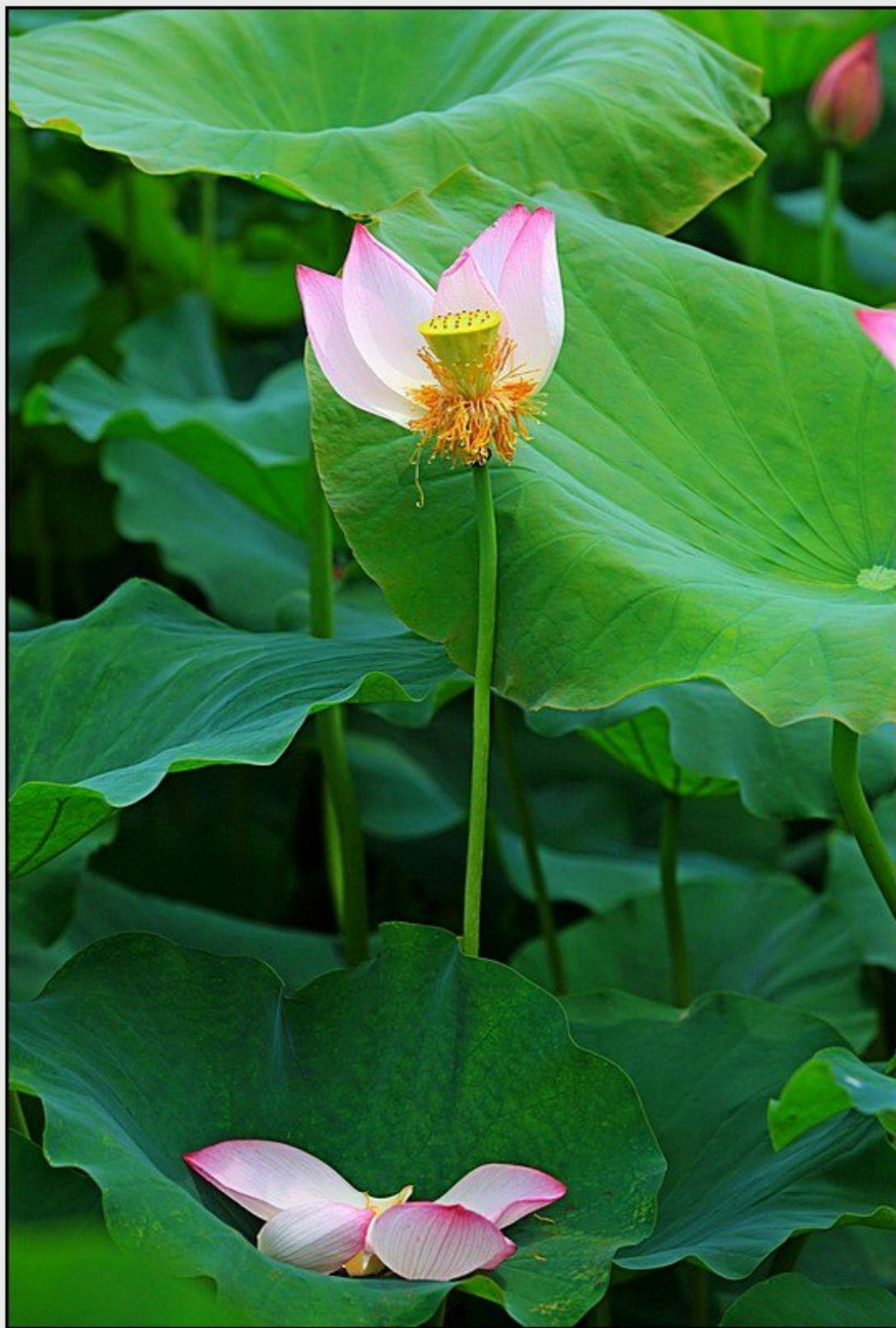
금년들어 두번째로 이 곳을 찾았다.  
하늘이 파라면 좀더 아름다운 정면을 담을 수 있을텐데 하면서  
서툰 목수 연장탓 하듯 날씨 탓을 해본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연꽃 속에 묻혀있다.

진흙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네 삶을 이 연꽃처럼 살라고  
절 근처에 연꽃을 많이 심는다고 한다.

이 곳을 찾으면서 꽃의 아름다움만 보지말고  
우리네의 삶을 이 꽃에 비교하면서 감상한다면  
좀더 뜻있는 출사가 되지않을까.....

비오는 날에 한번 가려고 한다.  
비올 때의 연꽃은 또다른 운치가 있을듯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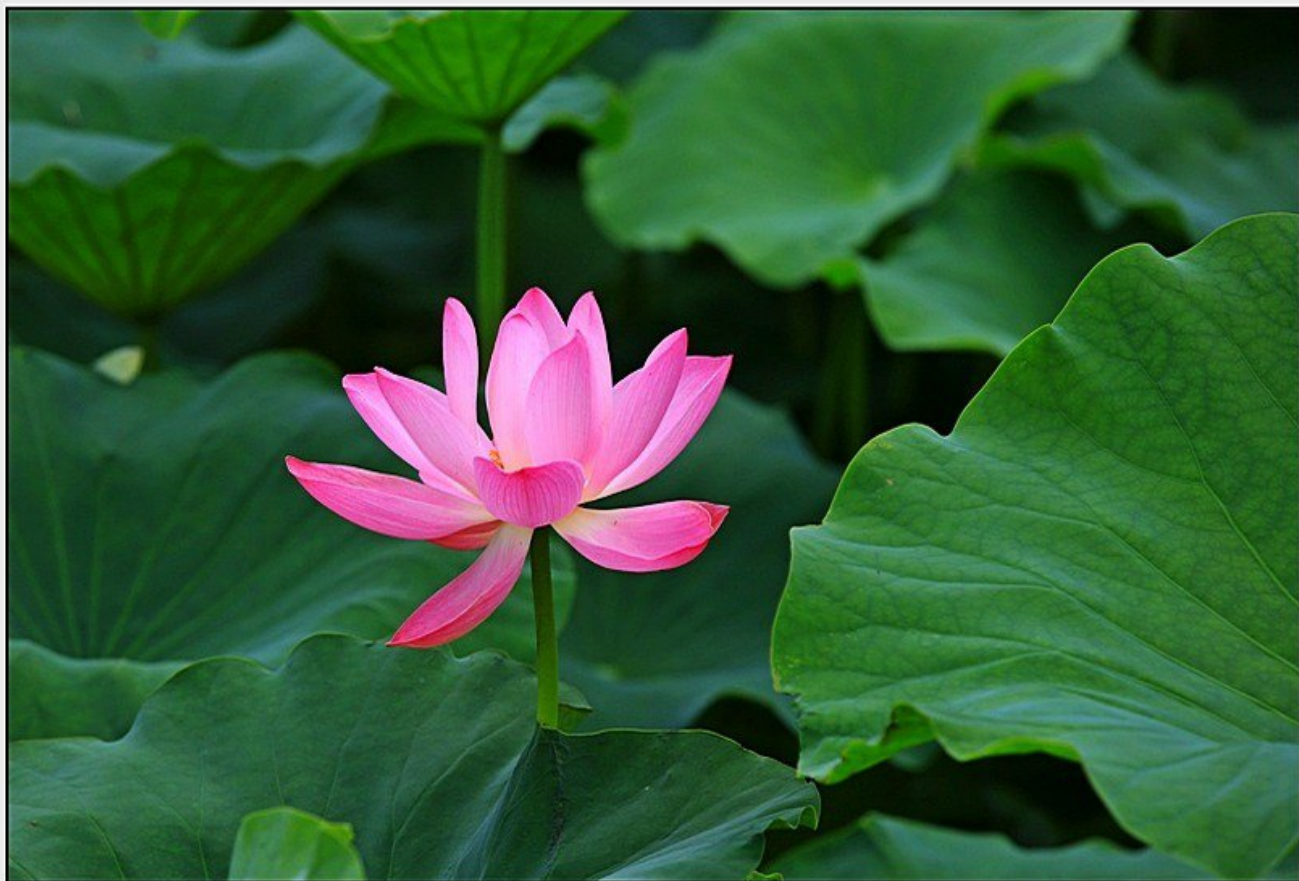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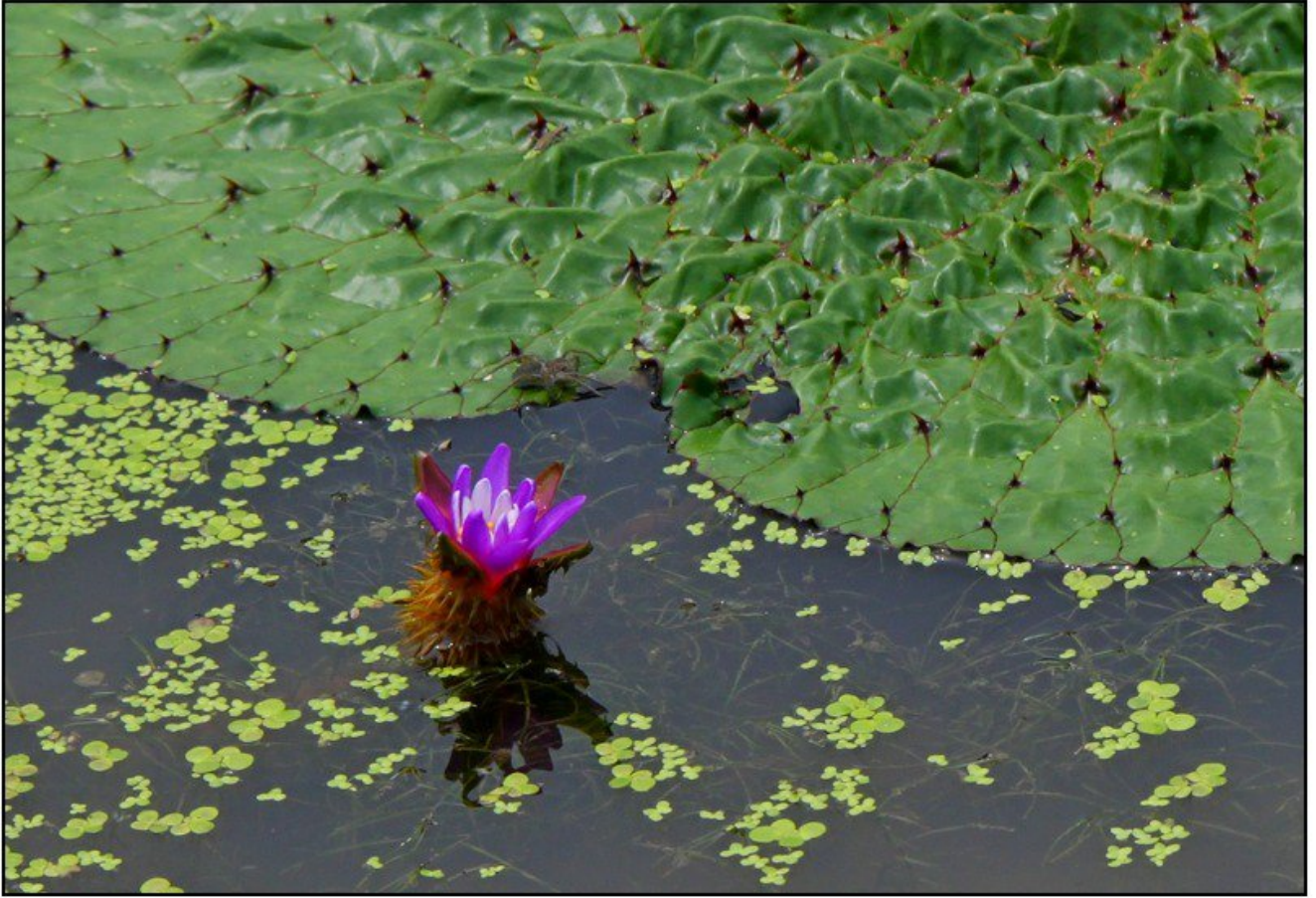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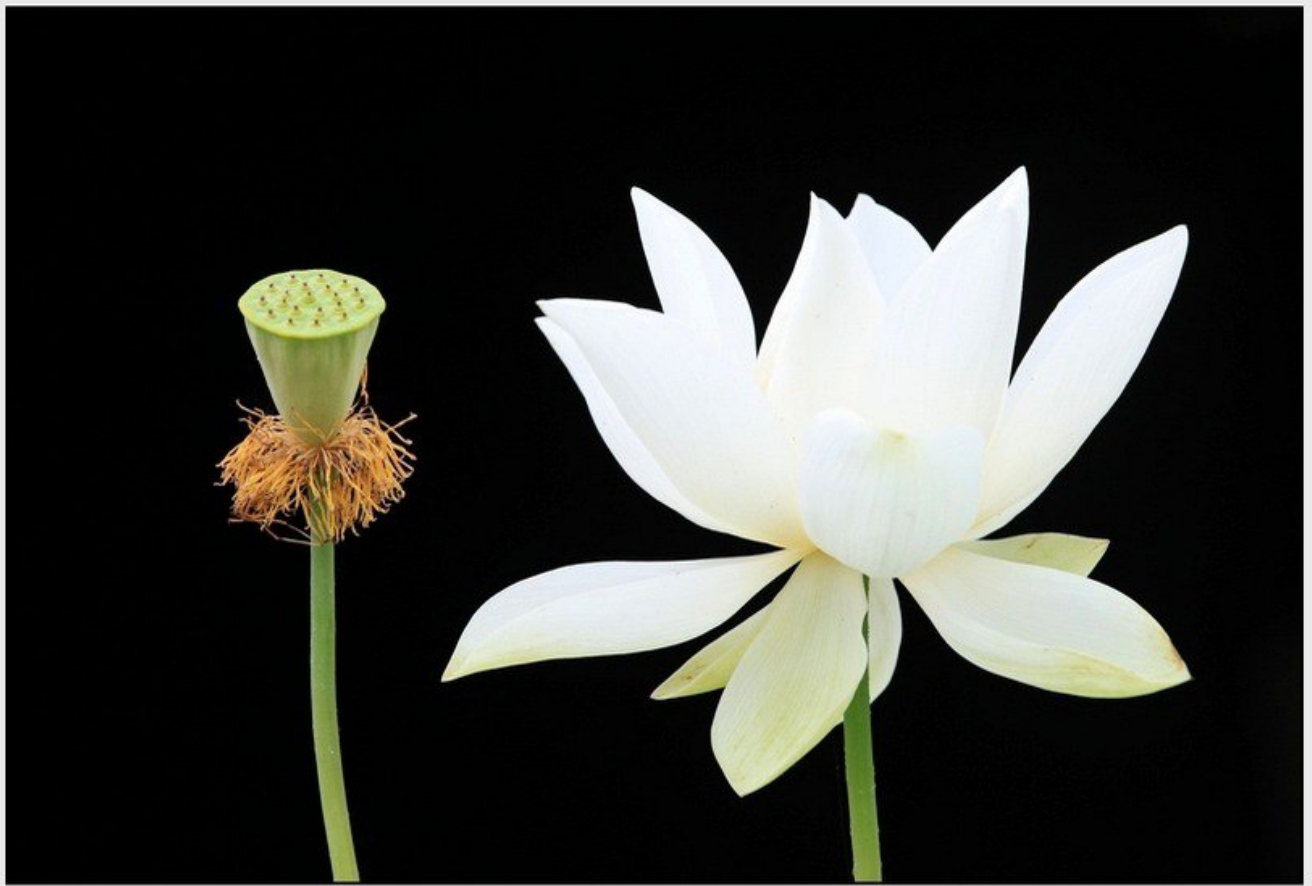












# 19

양귀비꽃

---

아편을 채취할 수 있는 양귀비 .  
꽃이 크고 매우 화려하다.  
요즘 조경용으로 쓰이는 양귀비는  
마약성분이 없는 개양귀비로 마약성분이 없다.

우리 어릴때 관에서 양귀비재배를 금지하였음에도  
몰래 재배하는 집이 많았다.  
한두포기를 다른 작물 틈에 키워서 말렸다가  
식구들이 배탈로 고생할 때 달여서 먹이면 효과를 보았다.  
아마도 마약성분이 진통제 역할을 하지않았나 보여진다.







## 꽃 이야기

블로그 시냇물의 행복한 세상 <http://blog.daum.net/simhsook48>

저자 시냇물

발행일 2013.06.26 14:59:56

 블로그